

'무적' 이세돌 10관왕 넘본다

이세돌 9단이 국내외 타이틀 10관왕에 도전한다. 이 9단은 지난 11일 한국기원 바둑TV스튜디오에서 벌어진 제35기 강원랜드배 명인전 본선리전에서 김지석 4단을 191수 만에 흑 불계로 꺾고 리그 전적 7승 1패로 결승진출을 확정지었다.

이 9단은 상금 1억원인 명인전까지 접수할 경우 국내외 타이틀 7개를 보유하게 된다. 현재 이세돌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외 타이틀은 GS칼텍스배, 도요타렌소배, 맥심배, KBS바둑왕, 불가장정보배, TV아시아선승전 등 6개다.

여기에서 이세돌이 명인전까지 접수할 경우 10관왕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는 국수전에서 4강에 올라 있고 LG배 세계기왕전과 천원전은 8강, 기성전은 16강까지 진출해 있다.

개인전에 관한 한 거의 전 분야에서 탈락은 물론 채 무한 질주를 거듭하고 있는 것.

공격·바꿔치기·수상전 등 수읽기 타의추종 불허 GS칼텍스배·맥심배 등 6관왕...명인전도 결승행

국수·기왕·천원전 등 '무한질주' 타이틀 독식 채비

이 9단이 조1위로 결승에 오르면서 이세는 어느 기사가 이세돌 9단의 결승 파트너가 될 것인지 팬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세돌이 이처럼 상승세를 타고 있는 원인으로는 변화무쌍과 대담무쌍으로 요약된다.

기존의 패턴에서 한참 벗어난 이세돌의 수읽기는 날카로운 뿐만 아니라 변화무쌍해 예측하기 힘들다.

또한 공격과 바꿔치기, 수상전, 대마 잡으러 가기 등 일반 기사들이 꺼리는 위험도가 높은 수법들을 태연히 저지르는 배짱 역시 타

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이세돌의 결승 진출이 확정된 가운데 명인전의 유력한 결승 진출 후보군은 복진석 9단과 조한승 9단.

복 9단은 현재 6승 3패로 동률재대국 내지 결승 직행을 확보하고 있다. 조한승 9단은 5승 3패로 복 9단을 바짝 추격하고 있는 상황.

조 9단이 배준희 2단과의 리그 마지막 대국에서 승리한다면 복진석 9단과 동률 재대국



으로 결승진출을 다투게 되고, 패할 경우엔 복 9단이 자동으로 결승에 오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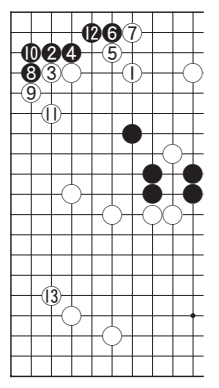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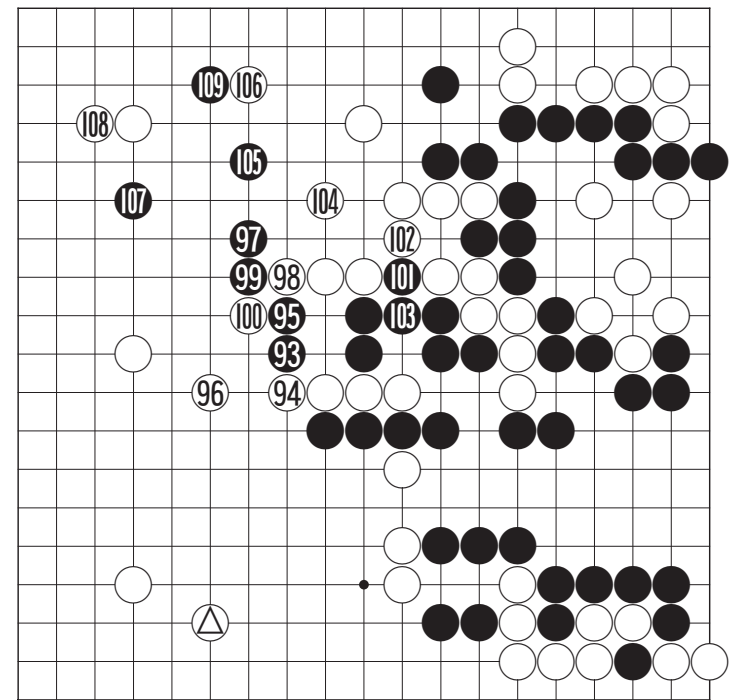
복 9단과 조 9단의 상대전적은 9승 5패. 조한승 9단이 앞서 있고 최근 GS칼텍스배 리그전에서 만나 조한승 9단이 이긴 바 있다.

강원랜드배 명인전은 강원랜드와 한국기원보가 공동으로 후원하고 바둑TV가 주최하며 한국기원이 주관한다. 우승상금은 1억원.

제16회 광일배 승부수인가 무리수인가

개인전 3·4위전 5보(93~109)

白 유희주 5단 (KT전선본부A) 흑 김영수 5단 (빛고령교사회)



<참고도>

백 98,100으로 무지근 하고 끊어간 수가 형세를 비판한 수로 이 수가 승부수이면서 무리수가 되었다. 이 수로는 평범하게 '참고도'의 백 1로 상변을 지키면 흑은 2로 3상에 들어오는 정도인데 12까지 된 다음 13으로 좌하귀를 지켜도 충분한 형세였던 것이다.

단체전에서는 최고의 활약을 보여 주었던 유희주 5단이 개인전에서는 냉정함을 잃고 성급한 반면연영으로 고집을 자초하고 있다.

돌이 부딪히는 난전은 김영수 5단의 전문분야야 마찬가지다. 흑 105,107을 선수하고 109로 붙여 불을 만난 고거처럼 판을 흔들며 대고 있다.

<요구형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미래 국수들의 진지한 눈빛

최근 경북 안동체육관에서 열린 제7회 안동시장배 선비고을 전국바둑축제에 참가한 유치부 어린이들이 경기에 몰두해 있다.

지구촌 반상 지존 가린다

내달 수원서 세계아마선수권대회 亞·중남미 등 70여개국 101명 참가

전 세계 아마추어 바둑 최고수들이 경기도 수원에 모여 반상(盤床)의 지존을 가린다.

오는 10월 14~16일 수원실내체육관에서 국제바둑연맹(IGF)에 가입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북남미, 오세아니아 등 70여개국 101명의 아마추어 바둑기사가 참가하는 '제2회 국무총리배 세계아마바둑 선수권대회'가 열린다.

대한바둑협회 주최 및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2회 대회는 10월 14일 오전 10시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16일까지 3일간 치러진다.

본 대회 뿐 아니라 개막일인 14일에는 외국인원 및 개인 참가자, 수원시민 등을 대상으로 경기도인 바둑대회(15일), 유명프로기사의 지도 다면기(15~16일), 한국바둑 60년 사진전(14~16일) 등 다양한 부대행사로 열린다.

또 국제바둑보급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바둑연맹회의가 개막일 오후 3시 수원실내체육관 소회의실에서 열고 15일 오후 2시 경기도 문화의 정다국 체육회에서는 아시아바둑연맹 각국 대표단이 모여 2010년 광주아시안게임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바둑의 경기종목, 매달 개수, 대표선발 방식 등에 대해 논의한다.

문화관광부, 경기도와 함께 이 대회를 공동 후원하는 수원시는 개막을 하루 앞둔 내달 13일 대회 참가 선수들에게 수원화성문화제(11~14일) 행사의 하나로 열리는 정조대왕 행차와 시연과 수원화성 및 화성행궁을 보여줄 계획이다.

다카오 신지 9단, 장쉬 9단 꺾고 명인전 순항

명인 보유자인 다카오 신지 9단이 최근 히로시마에서 열린 제32기 일본 명인전 도전 7번전에서 도전자 장쉬 9단을 꺾고 첫승을 올렸다.

다카오 9단은 대국 중반 곡면을 쉽게 마무리하고 198수라는 짧은 수순 끝에 장쉬 9단을 상대로 4집 반승을 거뒀다. 명인전에서 다카오 9단과 장쉬 9단의 만남은 두 번째.

이 대국 전까지 두 사람의 상대전적은 15승 1무 15패로 호각이었다. 도전자 장쉬 9단은 지난해 명인을 빼앗긴 뒤 후튼을 불살랐으나 선취점을 내렸다.

제시간 각 8시간이 주어지는 일순 끝에 장쉬 9단을 상대로 4집 반승을 거뒀다. 명인전에서 다카오 9단과 장쉬 9단의 만남은 두 번째.

대불대 "바둑학 전공자 모집합니다"

대불대학교가 바둑인재 양성을 위해 바둑학 전공 과정을 개설했다. 국내 대학 가운데 단순 특기생이 아닌 바둑학 전공자를 뽑는 것은 명지대에 이어 두 번째.

대불대는 우선 생활체육학과에 바둑학전공 과정을 운영한 뒤 명지대처럼 바둑학과를 발전시키는 등 광주·전남 바둑의 산실로 자리매김할

방침이다. 생활체육학과장 박종욱 교수는 "서남권 지역은 강진의 김인 9단, 영암의 조현현 9단, 신안의 이세돌 9단 등 한국 바둑계를 대표하는 인물들을 배출할 곳으로 고장 지역 특성상 바둑의 시대적 변화에 맞춰 국내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세계 바둑계를 이끌어 갈 바둑 인재를 육성할 계획"이라며 바

둑학 전공과정 개설 취지를 밝혔다. 대불대는 내년 3월 개강을 목표로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으며, 조현현 9단 등 지역 출신 프로기사를 초빙코수로 참여시키기 위해 다각적으로 접촉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체육학, 바둑학, 바둑실기 등으로 운영된다.

대불대는 특별전형 장학금과 국공립 대학입학 장학금, 대학과 및 보건 장학금 등 다양한 학비 지원 제도도 마련했다. 바둑교실 원장 및 사범들에게는 특별장학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

Real estate advertisements including '대인동상업부동산', '무등공인중개사', '정우부동산', '첨단월계공인중개사', '금보부동산컨설팅', '한일지도판매(주)', and '현대공인중개사'. Each ad lists various properties, services, and contact information.